



* 등급정보 (계란) *

▷ 26개 업체에서 생산한 4천347만4천개에 대한 등급판정 실시결과, 1*등급은 89.4%, 1등급은 7.3%, 2등급은 1.9%, 3등급은 1.4%를 차지, 전월대비 185만9천개(4.1%) 감소, 전년동기(22개 업체, 3천165만7천개)대비 1천181만7천개(37.3%) 증가, 금년누계는 2억8천456만1천개로 전년동기 누계대비 5천450만개(23.7%) 증가

계란 등급판정 개수 및 출현율

(단위 : 천개, %)

종량 규격	계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개수	%	개수	%	개수	%	개수	%
10년 1~7월	284,561	257,750	90.6	20,167	7.1	3,435	1.2	3,210	1.1
10년 6월	45,333	40,535	89.4	3,818	8.4	655	1.4	326	0.7
10년 7월	43,474	38,883	89.4	3,173	7.3	824	1.9	594	1.4
왕란	284	162	56.9	53	18.8	-	-	69	24.3
특란	31,860	29,093	91.3	2,383	7.5	180	0.6	205	0.6
대란	11,138	9,628	86.4	737	6.6	612	5.5	162	1.5
중란	58	-	-	-	-	-	-	58	100.0
소란	133	-	-	-	-	32	24.1	101	75.9

* 축산뉴스 (계란) *

↓ 계란값 약세...

봄철 이상저온 여파 등으로 채소류와 과일 등 각종 생필품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계란 가격은 1년 전 보다 20% 가량 떨어졌다. 특히 육계 가격은 지난 6월까지 고공행진을 거듭했지만 계란 가격은 지난해부터 약세를 이어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달 7월 30일 신세계 이마트에서 일반란 30개 가격은 3천980원으로 지난해 7월 말 5천430원에 비해 26.7% 하락했다. 영양란(15개) 가격도 지난해 7월 3천450원 보다 25.2% 떨어진 2천580원에 판매되고 있다. 농협유통 하나로클럽 양재점에서도 왕란 30개 가격은 3천980원으로 1년 전 5천30원 보다 20.9% 낮다.

채상천 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연구원은 "특히 지난해부터 정부의 시설 현대화자금 지원 등에 힘입어 대규모 사육농가가 늘면서 계란 생산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불별더위 속 계란 위생·안전성 검사 강화

전라남도 축산기술연구소가 불별더위 속에서도 영양학적으로는 대단히 우수한 식품이지만 관리 소홀로 부패하기 쉬운 계란에 대해 위생 및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지난 7월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집하장으로 출하하는 계란 생산농장과 계열 출하 농장, 계란 가공공장 등에서 유통되는 계란을 대상으로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의 잔류여부와 변질·부패 여부, 그리고 대장균, 살모넬라균 등 오염지표 미생물검사를 종합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조상신 전남도 축산기술연구소장은 "먹을거리의 안전관리에 대한 소비자 욕구가 높아지고 있어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인 검사가 강화되고 있다"며 "도내에 유통되고 있는 계란 등 식용란을 포함한 축산물에 대해 수시 수거검사를 강화해 국민 건강 보호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